

인포어린이도서관 Workshop참관기

김 효 정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서 언

인포어린이도서관인을 위한 Workshop은 한국에서 어린이 도서관담당 어린이도서관인의 첫 모임으로 에스콰이아 사회과학재단의 지원 아래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발전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우리의 현실은 선진교육을 주창하고 있으나, 본말(本末)의 전도, 권위의 상실과 동요, 부당한 교과과정등에 의하여 사회적 모순, 인간성 상실 및 환경파괴를 야기시키고 있어 사고력, 창조력, 상상력 등의 고등정신력을 가진 전인적 인간의 형성을 요구한다. 보다 높은 지력, 보다 예민한 인간적 감수성, 보다 투철한 윤리의식, 보다 국제적 의식인 미래의식, 시련을 이기는 의연함 등을 지닌 인간성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도서관은 정보 교육 오락 센터로 알려져 있고 어린이도서관은 독서의 즐거움을 어린이에게 알려주고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게 개발해주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간성회복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린이의 지식 지성 상상 가치를 개발하고 질문의 답을 찾는 기본기술을 개발하고 정보와 지식에 대한 바른 권리를 구사하게 하고 넘치는 정보에서 압도당하기 보다 정보의 주인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본 글은 1990년 5월 4일부터 국내외에서 개관되고 있는 인포어린이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인을 위한 첫 Workshop에 참관하여 한국 어린이도서관발전의

첫 기틀과 자료를 소개하고 남기려는데 뜻을 두고 있다.

I. Workshop배경과 그 필요

에스콰이아 사회과학재단 이인포 이사장은 우리나라 어린이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안겨주려는 목적으로 문화적 경제적 혜택을 못받고 가난한 변두리에 소외되어 있는 어린이에게 도서관문화를 조성하여 미래정보사회에 대비하는 어린이다운 어린이를 키우려는데 뜻을 두고 어린이도서관설립운동을 전개하여왔다. 본 재단은 1988년 6월 본인(本人)에게 의뢰, '한국어린이도서관모형'을 주제로 1989년 3월에 그 결과를 연구논문으로 발표하게 하고 이를 한국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기초로 삼았다. 이어 어린이도서관본부를 한국 사회과학도서관내에 설치하고 윤치경본부장을 임명하여 6월에 어린이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인포어린이도서관지침서를 작성하여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기초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부는 어린이도서를 선정하여 자료를 정리하며 기본도서목록을 만들고 어린이도서관의 설계 시설 비품을 고안하여 배치하고 전문어린이도서관인을 채용하고 수습기를 거쳐 훈련하고 있다. 각 어린이도서관인 마다 3-4주의 본부 및 이미 개관된 어린이도서관에서의 실습을 거쳐 대비시키고 있다. 현재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10개 어린이도서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인포어린이 도서관 개관 현황

개관시기	이름	사서	장서수	평수	기관	일일평균명
90. 5. 4	북부종합 복지관	허진행	4942	33	한국봉사회	140
90.10. 2	부산장선종합 사회복지관	배경미	4290	34	장선사회 복지회	78
90.12.22	광주북부종합 사회복지관	정승아	4535	36	한국어린이 재단광주지부	106
91. 4. 9	구로종합 사회복지관	윤문선	4791	48	은평천사원	178
91. 4.17	진도군고성 국민학교	하태완	6120	53	고성국교	84
91. 5. 6	태백기독교 사회복지관	송혜선	5104	49	기독교광산촌 사회복지회	152
91. 8.10	월곡종합 복지관	김혜영	4899	53	생명의 전화	159
91.10. 5	연길소년 아동도서관	전인옥	4408	34	연길시립소년 아동도서관	250
91.11.26	대전중니 종합복지관	이승연	4830	52	원불교 삼동회	250
92. 1.21	인천삼산 종합복지관	예은숙	4961	53	인천YWCA	

각 어린이도서관운영은 그 모체기관에 책임이 있고 개관후 10년간 신간자료 공급과 봉사활동 프로그램지도는 본부에서 책임지고 수행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자료와 시설 비품 일체를 모체기관에 개관과 동시에 기증하고 도서관활성화와 자생력을 구비하도록 어린이도서관 봉사 프로그램운영을 어린이도서관본부에서 지도조언한다.

1992년 1월 현재 10개관이 개관된 인포어린이도서관의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깊은 봉사를 위하여 어린이도서관인을 위한 Workshop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Workshop은 어린이도서관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어린이도서관프로그램의 검토와 개발, 개관이래 각 도서관의 현황과 문제를 같이 모여 협의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도모하려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II. Workshop의 일정과 내용

인포어린이도서관인을 위한 제1회 Workshop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기간 : 1992년 1월 13일-15일

장소 : 한국사회과학도서관 세미나실 E

대상 : 인포어린이도서관인 및 관련기관도서관인
제1일

10:00-10:20

인사말 : 이봉순 한국사회도서관관장

10:20-11:00

격려사 : 김수남 소년한국일보사장

11:00-11:40

제1강연 : 「어린이와 도서관」

김경일 한국도서관협회사무국장

11 : 50-13 : 00

제2강연 : 「어린이도서관의 봉사활동」

김효정 중앙대학교교수

14 : 00-14 : 30

특별강연 : 유정길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4 : 30-18 : 00

각 지역 도서관활동보고

제2일

09 : 00-18 : 00

상계, 월곡, 삼산, 구로, 인포어린이도서관 현장견학

제3일

09 : 10-10 : 00

1991년 프로그램검토 및 1992년 프로그램안 작성

10 : 10-13 : 00

운영상의 제문제, 종합토의 및 건의

본 Workshop에는 각 어린이도서관인 10명,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과천시립·용산시립·강동시립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인 7명, 본부 3명 등 모두 25명이 참석하였다.

인포어린이도서관 윤치경본부장의 사회로 Workshop이 개최되고 인포어린이도서관자문위원인 이봉순 한국사회과학도서관 관장의 “우리나라 어린이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고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도서관문화 혜택을 베풀려고 인포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였고 이제 전국의 10개 관을 개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 어린이도서관담당 어린이도서관인을 위한 Workshop을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하며 첫 모임이나 인포어린이도서관 발전과 한국어린이도서관 변영의 초석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라는 인사말이 있었다.

김수남 소년한국일보사장은 어린이도서관운동은 곧 어린이운동이고 어린이를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어린이운동, 어린이문화운동은 있을 수 없으며 어린이사랑이 곧 나라사랑의 지름길임을 강조하여 어린이도서관인의 의식과 사명감을 깨우치게 하는

격려사와 함께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선생의 어린이사랑을 소개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김경일 사무국장은 「어린이와 도서관」: 제1강연에서 어린이는 21세기 창조자이고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독서 교육 문화의 장이고 어린이도서관인은 어린이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어린이자료를 수집, 조직, 비교, 분석, 조정하고 어린이와 자료를 연결하는 촉매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여 어린이도서관의 의식과 사명을 확실하게 하고 인포어린이도서관운동은 1920년대 어린이를 학대에서 구하고 사랑하며 바른정신을 가지고 자라게 하였던 소파 방정환의 어린이운동과 같은 제2의 어린이문화운동임을 인식시켰다.

본인은 「어린이도서관의 봉사활동」: 제2강연에서 현대국가적이익이나 이념 우선 순위에서 인간성은 상실되고 기업변영과 경제우선 순위에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어린이가 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미래세계의 인간특성에 따른 어린이요구를 분석하고 이 요구충족을 위한 어린이도서관의 기능과 잠재력을 밝혔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성장발달에 관계되는 모든 매체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배포하고 어린이가 보고 듣고 읽고 말하고 만들어내고 경험하는 등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아이디어, 상상력, 창조적 표현력을 이끌어내는 어린이종합교육프로그램인 것이다. 어린이가 배우고 어린이를 가르치는 과정에 항상 참여하여 어린이 개체가 자연적인 자료원 속에서 자기실현과 함께 이웃과의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이끌어 전인적 인간을 가꾸어 가는 잠재력을 반드시 내포한다. 그러므로 어린이도서관의 봉사활동의 방향은 적기(適期) 적서(適書) 적자(適者)의 원리에 의하여 어린이 자아개발, 정보기본기술의 개발, 정보지식에 대한 바른 권리행사, 넘치는 정보에 조정당하지 않는 정보활용 등으로 어린이를 정보의 주인이 되게 돕는데 있다고 하고, 가능한 봉사활동을 열거하여 어린이도서관인의 자긍심과 봉사활동에서의 사명감을 다짐하게 하였다.

현재 인포어린이도서관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유정길관장은 복지관프로그

램의 특성을 살피고 어린이도서관프로그램개발을 격려했다.

저녁 18시 30분까지 열기에 가득 차 계속된 각 분관의 현황보고와 협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도서관인들의 첫 활동이었으나 각기 투철한 사명감과 우수한 자질은 효율적 도서관봉사의 운영을 확실하게 한다. 각 도서관마다 독서기록카드를 중심으로 독서지도, 독서상담 및 개인별 봉사활동을 행하고 있다.

상계 : 노원구 상계동 철거민 아파트와 이웃 4개 국민학교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복지관 3층에 위치하고 감상화, 동화구연, 내가 되고 싶은 인물그리기, 비디오상영 등을 실시하였고 독서클럽과 체험담지기(명사강연)는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개인별로 도서관이용을 지도하고 장소의 협소로 쾌적한 분위기 조성에 힘을 기울이며 전시물로 어린이에게 매력있게 홍보활동을 한다. 책읽는 도서관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을 지적하였다.

부산 : 북구 구포에 위치한 장선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주로 중산층 아파트 어린이를 대상으로 감상화, 내가 되고 싶은 인물그리기, 비디오 상영, 오락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교통이 불편하여 도서관에 오는 어린이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어린이도서관인의 어린이와 계속되는 접촉 노력으로 애니메이션의 높은 이용률을 창작동화로 전이시키고 있고 일반인들의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인식부족을 지적하였다.

광주 : 북구 오치동 한국어린이재단 광주지부 종합복지관 3층에 위치하고 아직은 신흥 아파트 주택가이어서 학교와의 관계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애니메이션, 그림책 이용자가 많고 창작, 소설, 역사, 전기, 과학의 순으로 눈에 띄는 것부터 시작하여 각 주제로 분산하는 사실이 관찰되었고 만화는 1일 1권으로 어린이와 약속하고 분실가능성이 큰 자료는 어린이 도서관인 눈에 띄이는 가까운 서가에 배치하여 그 이용도를 조정하고 있다. 합창단을 조직하고 탁구

대회도 개최하는 등 관의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구로 : 영등포구 구로 제1공단내 종합복지관 2층에서 저소득자 밀집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웃 국민학교 4학년 이상 한 학급씩 매일 오전에 도서관에서 독서시간을 갖게 하는 학교와의 유대강화가 확립되어 많은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다. 그림책, 애니메이션의 이용율이 높고 자원봉사자가 활용되나 기대에 못미치고 감상화, 동화 구연대회, 비디오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어린이도서관인의 전문직을 위한 교육기회가 절실하다.

진도 : 진도읍 고군면 고성국민학교에 자리하여 변두리 외진 곳이므로 이웃 8 국민학교의 이용이 불편하다. 교육장 지침에 의해 권장도서, 필독도서를 확보하고 있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 1시간씩 독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태백 : 태백시 기독교 광산촌 사회복지관 2층에 자리하여 일반가정 어린이보다 광원이나 상업인, 결손가정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고 이용자의 급격한 증감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태백시 어린이를 위한 첫 문화공간으로 감상화, 내가 되고 싶은 인물그리기, 비디오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대체로 어린이의 발표력이 부족하였다. 기독교 선교와 함께 운영의 자유와 지원협조를 받고 있으나 어린이도서관인 사이의 교류에 의한 자극과 어린이도서관인 교육의 기회를 바란다.

월곡 : 성북구 월곡 삼거리 월곡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하여 군소 공장밀집 및 상업주거지역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희망도서 예약제, 독서상담, 이용어린이 파일 작성, 생일 어린이 축하게시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의 호응을 얻고 있고 자모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 : 북구 중니동 영구 임대아파트 종합복지관 3층에서 도시영세민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3일 동안 Workshop에 참석하는 어린이 도서관인에게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는 아

쉬움에서 보내온 사진이 든 편지글도 있었고 유성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책을 읽으러 1시간 이상씩 버스로 인근 어린이가 오는 정도로 매력있고 인기를 모우고 있다. 국민학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주부독서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결 : 중국 연변자치주 연길시 소년아동도서관 3층에 위치하고 사회주의 체제내에서 공공도서관이 발달되어 있으나 대체로 이용율이 낮은 편이고 인포어린이도서관 이용율은 타도서관에 비해 놀랄 정도로 높다. 전체 도서관 분위기와 색채있는 어린이책에 매료되어 이용어린이중 80%는 애니메이션과 그림동화를 보며, 1,2학년 10%, 3,4학년 60%, 5,6학년 30%의 이용비율을 나타내고 한 어린이가 독서하는 시간은 비교적 길다. 중국에서 한국민족문화 묘목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구로 도서관을 돌아보며 그 도서관의 자료, 시설, 비품, 환경구성 및 전시물과 매력있는 어린이 도서관 분위기를 현장직학하였다. 시간을 아껴 오가는 차중에서의 자유로운 대화와 토의는 각기 자기도서관의 모습을 되새기고 이상적인 어린이도서관의 새 모습을 그리면서 어린이도서관인의 사명을 더욱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었다.

동행한 시립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인들은 인포어린이도서관의 시설, 비품과 자료에 아주 매력을 느꼈고 외국의 도서관과 비교하여도 우수하고 Workshop에서 각 인포 어린이도서관인의 사명감과 열의 및 정성어린 봉사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자신들의 도서관이 비록 시설 비품은 부족하나 인적 자원은 확보되어 있다는 서로간의 대조적인 입장을 피력하여 주었다.

III. Workshop의 종합토의와 건의

둘째 날은 임대한 교통편으로 상계, 월곡, 삼산,

세째 날 종합토의는 윤치경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

[표 2] 인포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案

종류 \ 년도	'91년도 案	'92년도 案
읽고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날 “내가 되고 싶은 인물” 글 또는 그림 • 독서감상화 •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 동화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날 “내가 되고 싶은 인물” 글 또는 그림 • 독서감상화(공동작업) • 저자,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 동화 대회
듣고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담 듣기 • 명작 비디오 • 이야기 들려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작 비디오 • 이야기 들려주기
집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 클럽 • 정보 및 자료제공 독서상담, 이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위원회 • 정보 및 자료제공 독서상담, 이용교육
지역사회와의 협력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일에 관한 자료 집중 소개 • 학교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일에 관한 자료 집중 소개 • 학교와 협력

되었다. 1991년도 봉사 프로그램안의 시행결과를 검토하고 1992년도 봉사 프로그램안을 전체의 동의 를 얻어 [표 2]와 같이 확정하고 특별 프로그램 2 회, 자체 프로그램 3회로 연5회를 넘지않게 각 도서관별 봉사프로그램안을 개성있게 제출할 것을 합의 하였다.

종합토의에 참석한 어린이도서관인들은 ① Workshop에서 깊은 감명과 자극을 받았고 이와 같은 기회가 자주 있기를 바랬으며 ②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신감 및 의욕을 맛보 았고 ③ 한국어린이도서관인으로서, 처음 전문직의 인식과 의식을 공고히 하고 서로를 위한 유대 강화 를 다졌고 ④ 복지사들과도 함께 하는 Workshop 을 요구하였고 ⑤ 1993년 5월 제2회 Workshop 개최를 태백으로 정할 것 등을 합의하였다.

건의사항은 ① 어린이도서관인에 대한 인식부족으 로 의욕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 본부와 모체기관으 로부터 어린이도서관인들이 명실공히 전문직으로 인 정을 받아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② 전문도서관 인 1인으로는 너무 벅찬 업무이기에 선처를 요망하 였고 ③ 부모와의 프로그램개발을 동의하였고 ④ 어 린이도서관인 명찰달기 등을 종합건의하였다.

결 언

인표어린이도서관인 Workshop은 한국에서 처음 으로 어린이도서관인의 의식과 사명을 새롭게 다지 고 20~30년 후 인간성 투자를 위한 문화의 역군으 로 어린이도서관인 사이에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인표어린이도서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초석으로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 Workshop은 생각하는 어 린이, 정보의 주인이 되는 어린이를 키우려는 우리 나라 어린이도서관의 첫 싹들이었다. 한국어린이도서관의 발전에 성과있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 게 종합할 수 있다.

① 미래의 정보화, 국제화 사회에 있어서 어린이도서관인의 의식과 사명을 고취할 수 있었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인의 확고한 신념과 우수한 자질을 효율적인 어린이도서관운영에 핵심 요소임을 확인

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를 분별력있는 소비자, 판단력있는 유권자, 유능한 지도자로 성장 시키도록 지구 마케팅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생산능 력과 신속한 사회와 기술변화에 직면하는 힘, 읽고 쓰는 능력, 환경파괴와 민주화 과정에서 인간성 회복의 길을 개척하려는데 있어서 어린이도서관인의 윤택유로씨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게 하였다. 실제로 '툼아저씨 오두막'을 읽고 그린 감상화에서 수평저울에 올려놓은, 또는 널뛰기판 위 에 그려져 있는 흑백인종의 모습, 그리고 환경오염에 관한 감상화에서 꼬리를 구부리고 온 몸에 봉대를 감고 창을 들고 있는 물고기가 땀흘리며 떨고 있는 사람을 찌를 듯한 모습들의 발상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어린이의 순진한 마음을 순수하게 개발한 싱그러운 것이다. 이러한 상상력의 개발은 한국 민족의 내일이고 인류 미래 의 보고(寶庫)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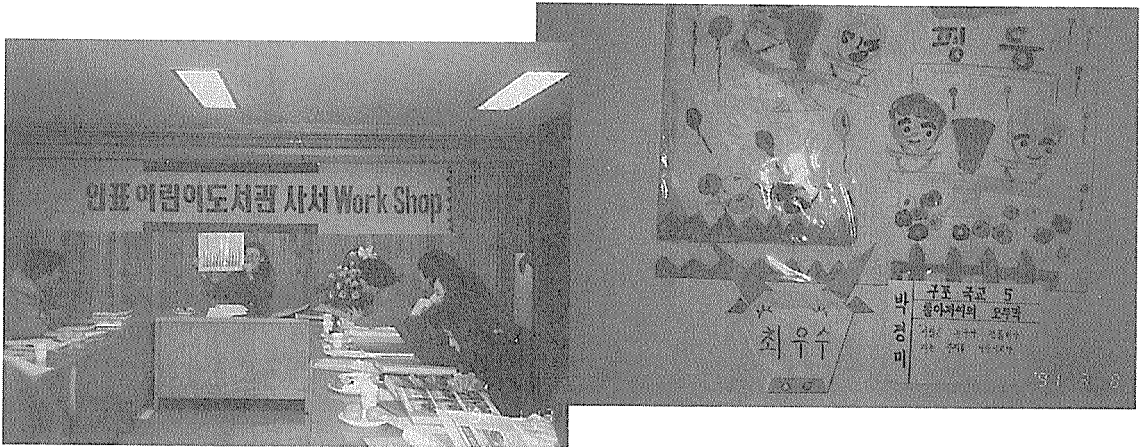
② 어린이도서관인의 전문성 확보방안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어린이 도서관인의 책임과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하여 모체기관과 재단의 인식 및 배려를 새롭게 할 방안으로 작고 쉬운 것부터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모색할 필요를 참가자 전원이 절감하 였다. 특히 2박3일의 합숙과정에서 인어회(인표 어린이도서관인모임)의 발기와 격의없는 의견 교 환 및 다짐은 문제해결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③ 1920년대 소파 방정환의 구국운동 및 신문화운동 으로 시작된 미래지향의 어린이운동과 같이 이 Workshop은 21세기를 향한 어린이문화운동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개발하고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 게 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첫 한국 어린이도서관 운동이었다. 이 운동이 비록 작고 힘없는 잔물결 이나 전국 및 중국(연길, 용정, 심양), 소련(사 할린)까지 20~30년 후 우리 한민족문화의 큰 물결을 일으키어 전세계로 겹쳐져 누빌 것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첫 어린이도서관운동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생각하는 어린이를 키우려는 에스 콰이어 사회과학재단 이사장의 20~30년 후를 바라

보는 인간투자 의욕과 소리없이 어린이도서관운동에 관계하는 여러분의 노고 그리고 얼굴없는 본부 임원의 헌신적 봉사와 사명감으로 이룩된 것이다. 이에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를 대신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 한다.



회원 입회절차

회원에 입회코자 하실 때에는 회원입회 신청서에 소정사항을 기재 날인하여 제출하고 소정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 ※ 1. 전화신청가능
- 2. 회원가입시특전은 평생 회원란 참조
- 3. 연락처 : 한국도서관협회
· 전화 : 535-4868·5616

회원의 구분

회원구분	회비(연)	입 회 기 준
단체회원 1	180,000원	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의 국공 사립 공공도서관/대학(교)도서관/연구기관 부설도서관/금융기관 및 기업체 부설도서관/중앙부처 부설도서관/군기관 부설중앙도서관/기타 주요도서관
단체회원 2	120,000원	시소재지의 공사립 공공도서관/전문대학 도서관/관공서 및 사회단체 부설도서관/ 군기관 부설도서관/기타 주요도서관
단체회원 3	40,000원	초중고등학교도서관(실)/금융면소재 공사립 공공도서관(부회비 2,000원 포함)
개인회원	15,000원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자격증 (1급정사서·2급정사서·준사서·사서교사) 을 소지한 자 및 도서관학을 18학점이상 이수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